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야, 너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하고 꾸짖으셨다. (마태 16 : 13~23)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다달았을 때 문득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언지시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한 마디씩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그쳐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남의 말을 전하는 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개 직접적인 해답을 피하거나 얼버무려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더우기 요즘같이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일조차 결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사는 환경 속에서 의견을 솔직하게 묻는다는 것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하 실제적인 대화를 하게 된 배후와 환경을 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마침 로마에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세이아누스가 디벨류스 황제와의 권력투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처형을 받았읍니다. 이 정치 권력의 싸움이 당시 유대 총독으로 파견받은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산하드린에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도는 처형당한 세이아누스의 추천과 지지로써 유대의 총독이 된 사람이고, 또 산하드린도 역사 로마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정세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도 역시 이와 똑같은 불안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산하드린의 의장이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태도는 시종 일관하여 「무사주의」였습니다. 안팎의 정치적 상황이나 종교

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될수 있으면 Status Quo, 무슨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을배반에 빠져 버렸습니다. 유대인 동포들의 반로마 제국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과의 타협에 의해서 현상 유지를 해야만 산하드린이 유지가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세아누스 정변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반로마제국에 대한 감정을 촉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것이 직접 사두개파나, 산하드린의 존폐에 관계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감정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을단 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곧 유월절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조국 광복을 꿈꾸게 하는 계절이었으므로 이러한 국민감정을 유발시키는 광복지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위 사정에 민감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를 아끼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의 유도심문에 대해서 대답한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 귀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 자체를 놓고 신학적인 문제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나 다른 제자들의 말들은 후세의 신학자들에게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신학논쟁은 때로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비밀의 베일이 약간 벗겨지는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러한 문답을 주고받은 장소는 조그마한 언덕 위였습니다. 언덕 밑으로 뿔어 내려가면 빌립보 가이사란 마을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 마을 옆에는 조그마한 폭포와 샘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서 요단강으로 뻗어가, 그것이 흘러서 갈릴리호수로 쏟아져 갑니다. 지난 날에 예수께서는 그 강물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올 환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이것이 자기가 받아야 할 세례요, 마셔야 할 잔이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하셨습니다. 이 인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만이 아는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밀의 힌트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비추어 주고는 절대로 입 밖으로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충격을 줄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눈여겨 보고 들어온 제자들은 필경 그가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로마제국의 압정에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며 정의가 실현되는 여호와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과부의 자식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한적한 시골에서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의 모습, 절름발이를 고치신 일, 이 모든 기사 이적을 행하는 이야말로 이 세상에 속한 힘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은 「남이 뭐라고 하더라!」하는 따위의 삼자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재적인 고백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의 비밀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 할 길을 택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말리던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의 일단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힐책하셨습니다. 어떤 번역에
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에 머물러 있
거라. 내가 가는 길의 방해가 된다.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
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편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모두 사람의 편에 서
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폴 터너어이란 분은 스위스의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쓴
<비밀(秘密)>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의자
를 뒤집어 놓고 이것을 배라고 합니다. 저쪽 구석진 곳을 마
르세이유 항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방 안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순전히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방 안에서 뱃놀이를 하고 한 아이는
자기가 선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
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에
게는 이것이 절대로 가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배처럼 생각하고 방구석을 진짜 항구처럼 생각하며 놀고 있
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디까지나 의자에 지나지 않고, 방구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진짜인 것
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세계의 비밀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비밀의 세계를 모르는 어른들은 어디까지나
의자는 의자요, 방구석은 방구석입니다. 그러나 상상의 세계
서 노는 어린 아이들의 세계의 비밀은 결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를 엮어 놓고 뱃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벌써 거기서 현실을 넘는 새로운 세계를 그리고 보고 있습니
다. 어른들은 이것을 유치하다고 합니다.

모든 현대의 문명은 어린이들의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의 어린아이로서 벌써 이런 세계의 비밀을 보셨습니다. 그는 이 비밀이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비밀이었습니다. 30여년 동안에 그가 인간으로서 굶주리고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든 일을 겪어가는 동안에 어렴풋이 느껴지던 것이 점차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결코 율법이나 이 세상의 정치나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로부터 들의 백합화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아서 이것을 입증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내다 보셨습니다. 이러한 고독한 심정을 알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를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람의 편에 섰다고 하신 뜻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아이가 보는 이 상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종말에 가서는 죽어서 썩어져버릴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보는 세계는 결코 썩어서 죽어버리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러한 세계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모두 사람의 편에 서는 자들이다.」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받은 아들로써의 생활을 시작하고 그와의 관계를 인식할 때 우리에게 새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방 안에서 뱃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의 세계처럼, 이 현실에 집착되는 어른들에게서 유치하다는 소리를 듣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허무하고 현실 앞에서 비위에 부딪치는 계란 같은 무력함을 느끼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역사 안에서 거품과 같이 사라지지 않는 힘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인간이, 새 세계를 보는 상상의

눈을, 어린이의 세계를 없이할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의 힌트를 주시고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① 돌이 한쪽을 지어서 다니라. ② 돈과 음식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 하나, 신 한 켤레, 속옷 한 벌만 가지고 다니라. ③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선교하라. ④ 대접해 주는 집에 머물고, 냉대하는 집에는 유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마태 10 : 16)

때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언을 기독교인의 성격묘사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베 속에서 사는 양은 성격이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는 이와같은 비둘기의 성격과 뱀과 같은 성격을 겸해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면서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배교자들은 뱀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중성격, 분열된 자아를 위장하기 위해서 뱀같은 지혜를 짜내면서 살다가 결국 뱀으로 완전히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위험은 결코 우리를 둘러싼 이리베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혜있는 뱀의 무리입니다. 비둘기를 삼켜버리는 것이 이리베가 아니라 이러한 변신한 뱀들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란 결코 굶주린 이리떼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삭빠른 뱀의 지혜를 구비하고 있는, 안팎의 적인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이 결코 로마의 관헌들뿐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한 경건한, 지혜있는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고발한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하드린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한 발문을 편집해서 발표할 때 저들은 율법서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죄목을 신명기·데위기에서 추려서 그를 이단자로 몰았읍니다. 그리고 네 가지 죄목을 추가해서 거짓 예언자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촉진시킨 것은 뱀같은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면 미치광이의 잠꼬대로 들렸읍니다. 국가의 안보를 해치고 현실서를 파괴하는 불순분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읍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로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새로이 하자는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외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고백을 재촉하는 권면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연한 일이란 한가지도 없습니다. 모두 그의 성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줄 믿는다면 분명히 오늘 한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신앙고백을 해야 합니다. (1974. 6. 2. 수도교회에서)